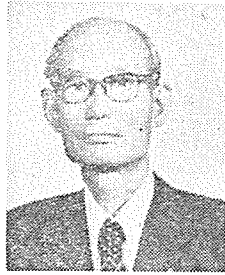


# 元老科學技術者の證言

<1>



尹 日 善 博 士 篇

<上>

## 醫學專功 動機

내가 中學校때였다.  
 서울엔 이름있는 醫師라고 해야 西洋人 몇 사람과 韓國人 醫師는 고작 3, 4명에 불과 했다. 어쩌다 집안식구가 병이 나면 醫師가 往診을 왔는데 이럴 때 마다 집안어른들은 醫師를 선생님 이상으로 극진히 待接했다. 어린 나는 이때부터 마음 속으로 醫師를 우러러보고 부럽기까지했다. 새삼 돌이켜 보니 中學校때부터 物理·化學 등 自然科學功夫에 趣味가 있었던 나로선 醫學專攻이 우연이 아닌 듯 싶다.

나는 日本東京서 프랑스 사람이 運營하는 가톨릭系 國民學校 4學年 在學中 故國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말도 잘할줄 몰라 많은 애로를 겪었으나 점차 익숙해지게 돼 1907년 小學校(國民學校)4학년에 轉學을 했다.

국민학교를 거쳐 京城中學校(現 서울중학교)에 入學, 5년 후인 1915년 3월 卒業을하고 나서 내將來問題決定에 상당히 腐心했다.

日本서 태어나고 日本서 功夫를 하다 歸國한 나로선 國內經濟事情이 어려운 때지만 一生을 判가름 하는 중요한 時期라고 생각, 어떻게 해서라도 高等學校와 最高學部인 大學까지 마쳐야겠다는 마음이 앞섰다.

逆境을 헤치고 先驅者가

결어온 醫學의 黎明期

- ...證言」을 高齡者順으로 신기로 했다.
- ...日의 發展을 爲한 資料로 提供하기 爲하여 新年 1月號부터 「元老科學技術者の...」
- ...해를 맞아 元老科學技術者の 證言을 通하여 黎明期의 實狀을 알아보고 이를 來...」
- ...에 點綴된 先驅者들의 業績은 더욱 찬란한 빛이 되고 있다. 그래서 本誌는 79年 새...」
-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內憂外患의 지난 歷史속...」
- ...를 음 하고 있다. 오늘의 이 括目할 成功의 뒤안길에는 科學技術者の 숨은 努力이...」
- ...發國圈에서 開發途上國上位圈으로 國力이 伸張되었으며 이제 先進國圈을 向해 발...」
- ...한나라의 科學技術水準은 그 나라 國力의 尺度가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低開...」

〈編輯者 誌〉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나는 특히 나를 길러준 할머니에게 大學進學의 뜻을 밝히자 「小學校, 中學校 모두 합쳐 10년 이상 學校를 다녔는데 더 이상의 功夫는 말도 않된다」고 필적 뛰시며 進學을 만류했다.

그때만 해도 10年程度 功夫하면 과거시험 치러 벼슬하고 學者가 된 많은 사람을 보아 온 할머니로선 判官試驗이나 치러 高級官吏가 되는 것을 願하지는 것이 無理는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官吏가 되라는 할머니의 완강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功夫를 더해야 겠다고 우겨 드디어 할머니의 허락을 받게 되어 日本 第六高等學校 第3部 醫科를 支援 入學했다.

## 學窓時節

1919년 7월 日本 第六高等學校 第3部를 卒業하고 京都帝國大學醫學部에 入學했다. 京都帝國大는 東京大學보다 學校雰圍氣가 매우 자유스러워 다른 學部講義도 聽講할 수 있어 基督青年會 寄宿舍에 같이 있는 친구와 宗教 哲學 美術講座도 듣고 教養書籍을 많이 읽으며 醫學功夫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京都醫學部는 1,2學年은 基礎醫學, 3,4學年때는 臨床醫學을 가르쳤는데 그때 나는 基礎醫學이 學門 같이 여겨졌다.

京都帝國大에는 病理學의 日本 代表的 學者 후지나기 教授가 있었는데 그는 나를 깊은 關心을 갖고 對해 주었다.

한편 후지나기 教授는 每週 水曜日 한시간 동안 學生들과 같이 점심식사를 했다. 寄宿舍食堂엔 醫學部學生 뿐 아니라 經濟 法學 理工學部學生들까지 북적이는 속에서 식사를 하며 많은 學生들의 質問에 應해 주는가 하면 世上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해주곤 했다.

지금과는 달리 그때는 스스로 學生들틈에 끼어서 점심을 들며 이야기해 주는 教授는 후지나기 教授밖에 없어 學生들의 人氣를 높이 샀으며 그 教授의 가르침을 받던 그때가 오래도록 내記憶에 남는다.

1923년 6월 京都帝國大學醫學部를 졸업한 나는 후지나기 教授가 受業料를 주어 大學院病理學教室부수 지급의 助教로 들어가게 됐다.

요즘은 인턴까지 報酬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 處遇改善을 요구, 환자결을 떠나는 實力行事까지 벌여 돈을 더 타내기도 하지만 그때는 처음부터 無報酬였다. 月給을 받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공부만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生活費가 떨어질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후지나기 教授를 찾아가 도움을 받기가 일쑤였다.

그 당시 大學院 登錄金은 50원一. 大學院入學 후 獎學金 90원을 타가며 2年間の 부수生活을 마치고 歸國했다.

## 博士學位 받기까지

1925년 가을 京城帝國大學醫學部 病理學부수로 부임했다. 그때 醫學部長은 痢疾細菌을 발견한 日本人 시가 教授였다. 시가 醫學部長은 日本에 있는 후지나기 教授와 東京大學 卒業年度가 같아 매우 親切한 관계로 후지나기 教授가 시가 醫學部長에게 내 紹介便紙를 한 것으로 짐작 되었다.

처음엔 教授를 시켜준다고 하더니 약속과는 달리 또 無給부수로 발명했다. 그때만 해도 월급 받는 日本人 教授도 없는 터인지라 韓國사람을 月給 주어가며 教授로 시켜줄 까닭이 없었다. 그러나 大學當局은 6개월이 지나서부터 내게 특별대우를 해주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月給도 받게되고 더우기 보나스까지 받았다.

나는 그 뒤 부수로 1년 있다가 조수를 거쳐 助教, 教授까지 되었다. 京城帝國大學서 教授가 된지 1년이 되던 해 1929년 5월 경 세브란스醫學專門學校로 자리를 옮겼다. 그 해는 내 教壇生活에 變化가 많았던 해로 생각된다. 그해 1월엔 國內 여섯번째로 博士學位를 받기까지 했다.

學位論文은 京城帝國大學에 있으면서 준비하기 시작, 1928년 12월 教授會議에서 통과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해도 學界는 물론 社會에서까지 크게 대우를 해 주었다.

내가 大學助教가될 때도 東亞日報에 『韓國사

特別企劃

람으로선 처음으로 大學助教授가 탄생했다』고 크게 報道되었지만 博士學位를 받았을 때도 大書特筆은 물론 東亞日報 주최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料理집 明月館에서 祝賀會를 열어주기도 했다.

요즘 책을 낼 때 出版紀念會처럼 大盛況을 이루었지만 특히 이 자리엔 그 당시 社會의 重鎮 尹致暎 박창우씨 등의 참석으로 더욱 자리를 빛내게 했다. 高等學校同門이며 한집에 下宿까지했던 당시 東亞日報 編輯局長 金俊淵씨가 누구보다 더 기뻐하는듯 했다.

### 30年代의 醫學教育機關

지금도 大學病院 하면 서울大學病院으로 여겨 지지만 이는 1930년 경부터 京城醫學專門學校의 代名詞이다. 그 당시 大學病院(京城醫專) 基礎醫學教室은 지금의 梨化洞 포장센터 뒤에 있었고 지금의 首都病院 자리가 附屬病院이었다.

이밖에 醫學教育機關으로는 내가 1925년부터 時間 講師로 나가다 1929년 專任教授로 옮긴 세브란스 醫專, 그리고 赤十字病院이 서울에 있었고 地方엔 大邱·釜山道立病院과 平壤·咸興醫學專門學校가 있었다. 나는 세브란스醫專으로 옮기면서부터 醫科大學教育을 세신해 나가는데 진력을 했다.

日本서 내가 배웠던 大學教育制度和 敎課課程을 最大한 活用하여 우리나라 實情에 맞도록 學生들 하나하나씩 指導해 나갔다. 이와 같이 가르쳐 열심히 4년간 醫學功夫를 마친 學生들은 日帝下에선 醫師免許證을 얻는데 상당히 힘이들었다. 지금의 制度和 비슷하게 醫專卒業班學生은 檢定試驗을 치러야 했고 合格해야 醫師免許證이나 왔다. 그런데 京城·大邱·平壤醫專출신은 卒業만 하면 日本內務省의 免許證을 곧바로 주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세브란스醫專은 例外였다. 卒業하면 日本 內務省免許證을 주지 않고 대신 朝鮮總督府의 免許證을 주게 하여 韓半島 안에 서만 開業을 하게 하고 日本 出國을 일체 금지시켰다.

이리하여 세브란스醫專 卒業生도 京城·大邱

平壤 醫專출신과 같이 卒業과 同時에 免許證도 나오고 日本을 자유스럽게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1929년 세브란스醫專으로 가게 된 5年後 學監職을 맡게 될 때부터이다. 나는 日本文部省을 내 집 드나들다시피 하여 1933년 겨우 指定을 받게 되었다.

세브란스醫專은 이로 인해 새 轉機가 마련된 셈이다. 이때부터 日本製藥會社에 점차 알려지기 시작, 藥品販賣外務員까지 보내왔다. 또한 學術論文도 日本醫學界에 자주 발표할 機會를 얻게 되었고, 外務省에 選拔되어 博士學位를 받는 등 1934년 卒業生부터 그 혜택이 컸다.

### 傳染病

나는 猩紅熱 경험까지 했다. 그 때는 별다른 傳染病豫防이나 對策이 없었으므로 病이 걸렸다면 거의 죽어갔다. 내가 小學校 때다. 호열자가 크게 蔓延되어 나는 3개월 동안 대문밖을 나와보지 못한 채 집안에 정구장을 만들어 놓고 야구나 축구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갖혀 있었던 때가 새삼 느껴진다.

1919년 여름 高等學校 入學 때 또 한번 호열자가 전국에 걸쳐 유행했었다. 9월 開學을 앞두고 호열자가 크게 번지자 父親께서는 日本에 못 들어가게 했다. 추위와 더불어 호열자가 고개를 숙인 11월에 日本에 간 나는 學校 成績이 너무 뒤져 이거 야단 낱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醫學部는 1週에 獨逸語講義가 13時間.

한 달반 동안 缺席한 나는 그 동안에 이미 獨逸語책 한권이 다 끝났다는 말을 듣고 더욱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獨逸語 공부는 高等學校때부터가 처음, 할수 없이 그제서야 부랴부랴 3學年인 金俊淵씨를 찾아 책을 빌려 공부를 시작했다. 다행히 그 해 11월 日曜日과 公休日이 겹친 날이 있어 그 이를 동안에 獨逸語 책 한 권을 다 때어버린 적도 생각한다.

이와 같이 한번 天然·痘病毒 등 傳染病이 들어 오면 마치 暴風雨가 스쳐간 것처럼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 버려 남는 것은 悲痛과 寂寞 뿐이었다.